

## 빌게이츠와 CD-ROM

CD-ROM이 지금과 같이 널리 보급되기에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CD-ROM과 관련지어 얼핏 생각나지 않지만 매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이다.

1982년 CD오디오를 판매하기 시작한 필립스와 소니는 1983년 CD-ROM규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텍스트와 이미지 외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추가한 CD-I라는 새로운 상품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MSX 규격의 컴퓨터를 일본에서 마케팅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CD-I와 다음세대의 MSX머신과의 결합이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립스와 소니에서는 MSX기종이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동협력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았다. MSX기종이 CD-I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보아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1985년 어느날 CP/M 개발자로 빌 게이츠에 못지않게 널리 알려진 게리 킬달은 CD-ROM 백과사전을 만들 새로운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자기 회사 근처의 아실로마에 CD-ROM 협의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빌 게이츠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다. 빌 게이츠의 전격적인 재치는 이때 발휘되었으며 몇 달 뒤 제1회 CD-ROM 협의회를 1986년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서



(솔빛조선미디어 사장)

마이크로소프트 주최로 여는 것을 발표하고 기조연설을 킬달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동시에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해 킬달이 그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하여 CD-ROM 협의회를 주도권을 킬달에게 빼앗아 왔다. 다른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테이션이라는 회사에게 CD-ROM 백과사전을 개발토록 요청하였다. 사이테이션사는 이미 독자적으로 사전, 연감, 동의어사전 등을 포함한 Bookshelf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흡수되었으며 이 회사의 사장인 톰 로페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D-ROM 부서의 책임자가 된다. 빌 게이츠의 CD-ROM시장을 석권하겠다는 1단계 계획은 킬달의 아이디어를 빌려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필립스의 CD-I는 당시 탠디의 칼라컴퓨터에 사용되는 OS-9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CD-I라는 제품개념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하는 제1회 CD-ROM 협의회에서 발표키로 하였다. CD-I의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싫은 상황이었지만 거절할 명분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다. 비록 CD-I발표로 약간은 상처를 입었지만 게리 킬달을 주제 발표하도록 한 이 협의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CD-ROM 제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CD-ROM 계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협의회가 끝난 후 빌 게이츠는 OS-9를 개발한 마이크로웨어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냉혹히 거절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CD-I와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다. 빌 게이츠의 CD-I에 대한 설욕은 이때부터 준비되었다.

1980년초 비디오시장은 VHS와 베타방식의 VTR, 파이오니어의 레이저디스크, RCA의 CED 방식의 대결이었으며 결론은 VTR의 완승과 RCA의 참패로 끝났다. 비록 상품에서는 실패하였으나 RCA의 CED방식의 연구진은 비디오 압축기술에 있어 당시로는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 연구진의 책임자인 아트 카프만은 1987년에 열리는 CD-ROM 협의회에서 DVI라고 불리우는 자신의 기술을 발표하기로 약속하였다. 빌 게이츠는 CD-ROM 협의회에서 지난 해의 설욕을 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였으며 DVI발표 전일의 가든 파티에서 필립스의 참석자로부터 “전화면 크기의 비디오는 1995년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얻어냄으로 준비의 치밀성을 더 했다. 같은 시간 DVI 팀은 다음날 발표의 총연습을 엉망으로 끝낸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일의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화면 전체를 덮는 비디오와 고음질의 음향효과가 장내를 휩쓴 후 카이만은 청중에게 지금 본 프리젠테이션이 CD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1200명의 참석자는 대통령의 지명연설이나 있음직한 기립박수를 보내었다. 빌 게이츠는 DVI에 대한 즉석의 지지발언을 하였고 청중의 관심은 CD-I에서 DVI로 옮겨졌다. 빌 게이츠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CD-ROM에 대한 그의 2단계 전략이 성공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DVI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RCA는 제네럴 일렉트릭에 인수되었으며 애플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회사들은 카이만의 인수제의를 거절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인텔에서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밖에 로터스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 4자간의 협상은 결실을 얻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손을 떼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인텔은 IBM을 끌어들여 결국 DVI는 인텔과 IBM의 공동 소유형태로 발전하였다. 그 이후의 DVI

의 앞날은 밝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텔도 1988년 시작된 12멤버로 결성된 국제표준기구의 미미한 활동이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이 조그마한 국제활동은 JPEG, MPEG라는 사진과 비디오에 있어 국제표준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지금까지 예가 없는 국제표준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디오에 관해서 DVI기술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빌 게이츠의 CD-ROM에 관한 관심은 그 후 계속되고 있다. 1988년의 CD-ROM협의회에서 그는 “1991년이면 CD-ROM을 장착한 386급의 PC가 \$1,000이하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그 예언은 2년의 시차를 둔 1993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그가 예상된 대로 CD-ROM이 보급되지 않자 빌 게이츠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사용한 전략은 “멀티미디어”라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BM에 제안한 멀티미디어 계획은 IBM이라는 대조직속에서 1년이상 지연되었으며 가격은 2배 이상으로 뛰게 되었다. 빌 게이츠는 결국 IBM과의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10여개의 회사와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MPC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PC를 발표한다. 1991년에 발표된 MPC에 대한 일반의 대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타이틀의 수도 모자라고 386의 성능은 멀티미디어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CD-ROM은 새로운 미디어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 이후에도 비디오 압축기술을 무기로 한 애플의 쿼타임에 의한 기습적인 공격이 있었으나 빌 게이츠는 비디오 포 윈도우라는 상품으로 이를 재치있게 방어하였다.

비록 빌 게이츠가 자신의 회사를 위해 여러 가지 술수와 기지를 이용하여 CD-ROM을 홍보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이 빨리 CD-ROM이 발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55년 10월 28일 출생으로 아직 삼십대이며 세계최대의 부호인 빌 게이츠의 미래를 보는 능력은 높게 살 필요가 있다. [B]